



~ 톰 윌슨 (18) ~

톰은 열세 살에 부모와 함께 뉴욕 교외로 이민 왔지만, 부모는 곧 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톰은 고아가 되었고, 어느 친절한 신자 가족 덕분에 머나먼 서부로 입양을 가서 새 가족을 만났습니다. 그 후 톰은 새로운 말도, 문화도 제대로 배울 틈도 없이 파수견으로 뽑혔습니다.

톰은 아직도 자신이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실감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보내는 나날은 과거 미국으로 오기 전 꿈꾸던 생활과는 무척 달랐고, 짧은 기간이지만 뉴욕에 있을 때와는 더더욱 달랐습니다. 사실 톰은 뉴욕에서 빠져나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그때 배운 것을 여기서는 되도록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톰은 지금까지 머문 곳보다 훨씬 더 넓고 조용한 이런 환경에서 엄격한 규칙을 고수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새 친구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과연 톰은 자신의 파수견 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톰이 “이방인”으로서 지낸 경험과 시간이 파수견 임무에 도움이 될까요?

톰은 파수견 생활을 하면서 신자들과 하나가 될까요, 자신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될까요?



~ 타비사 번즈 (17) ~

매우 보수적이며 권위적인 집에서 태어난 타비사는 다른 신자 집안의 여성들과 비교하더라도 훨씬 더 순종적이고 고분고분한 딸로 자랐습니다. 자신이 파수견 후보생으로 뽑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타비사는 무척 당황했으며, 아버지 역시 공공연하게 불평을 터뜨렸습니다(물론 집에서!).

타비사가 브라이들 폴즈 시로 떠나는 날, 부모는 타비사에게 항상 여자답게 정숙하고, 겸손하며, 순종하는 태도를 지키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타비사는 파수견 수련 과정에서 승마술을 배우고, 심지어 사격술까지 배우면서 파수견이 할 일은 부모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자신은 비록 몸으로 하는 일에 서투르지만 사격에 뛰어난 재능이 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무언가를 잘한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임을 처음으로 알았습니다. 생소하지만 무척 따뜻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타비사는 아직도 원래 지니던 수줍음과 순종적인 태도를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성들 앞에서는 더욱 말이지요. 하지만 파수견 수련생으로 시간을 보내면서, 타비사는 지금까지 부족했던 자신감과 자부심을 채울 새로운 기회를 얻었습니다. 과연 타비사는 파수견으로서 자신만의 길을 걸을까요, 아니면 순종적이고 소극적인 여성으로 남을까요?



~ 제레미 앨런 (20) ~

신실하지만 형편이 어려운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제레미는 어릴 적부터 경전 공부를 무척 좋아해서 청지기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제레미는 언젠가 청지기가 되어 생명의 책을 연구하는 명망 높은 학자들과 대등하게 토론을 하고, 직접 경전 해설서를 쓰는 날을 꿈꾸었습니다.

제레미는 비록 장래에 무엇을 하고 무엇을 공부할지 계획을 모두 세웠지만, 설마 자신이 파수견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차 청지기가 될 사람으로서 이런 기회를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레미는 전전공공하며 수련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신학 지식은 동기들보다 월등하게 뛰어났지만, 몸으로 하는 일은 훨씬 뒤쳐졌으니까요.

제레미의 걱정은 브라이들 폴즈 시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확신으로 바뀌었고, 특히 제레미는 폭력을 무척 혐오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파수견이 때로 폭력을 사용해야 한다는 사실 역시 잘 압니다.

제레미는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임무를 잘 완수할 수 있을까요?



≈ 루크 해밀튼 (18) ≈

루크는 신심이 깊고 평화로운 가정에서 태어나 여러 남매와 화목하게 지냈습니다. 루크는 어릴 적부터 밝고 호감을 사는 성격이었으며,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타고난 성품 덕분에 주위의 믿음과 신뢰를 샀습니다. 하지만 루크는 절대 자만하지 않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남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루크는 자신이 파수견으로 뽑혔을 때 무척 놀랐습니다. 그는 이 일을 무척 영예로운 임무로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과연 코트를 입을 자격이 있을지 의구심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루크는 동성 친구들을 향한 자신의 감정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은 여자들이 품어야 할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감정을 억누르고 행동한다면 죄가 아닐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루크는 언제나 조용히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만, 마음속은 의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자신은 파수견을 할 자격이 있을까요?





≈ 레이첼 쿡 (18) ≈

레이첼의 아버지는 교회의 임원이며, 어머니는 존경받는 파수견 출신 여성입니다. 레이첼은 자신이 파수견 후보로 뽑혔을 때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척 기뻐했지만, 놀랍게도 어머니는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들 폴즈 시로 가는 날, 어머니는 굳은 얼굴을 풀고 레이첼에게 파수견의 임무가 얼마나 막대한지 알려 주었습니다.

레이첼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훈련에 몰두했습니다. 교사들 사이에서도 어머니의 명성은 익히 알려졌기에, 레이첼은 더욱 각오를 다지고 밤낮으로 훈련과 공부에 열중했습니다.

레이첼은 파수견이 교리와 생명의 왕의 뜻에 따라 심판을 내리는 임무를 맡았음을 잘 압니다. 만약 자신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면 어머니의 얼굴을 뵈는 날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레이첼은 실전에 들어간 다음에도 자신만만할 수 있을까요? 레이첼은 타고난 성질을 억누르고 동정과 자비를 베풀까요, 아니면 자신감에 가득 차서 선부르게 심판을 내릴까요?